

◎ 서경순, 『몽경당일사』 (민족문화추진회, 연행록선집XI, 1982)

0. 해제

- 1855년(철종6년) 종사관 서경순의 기록. 정사 서희순의 삼종제.
- 청 도광황후 조문사절.
- 1855년 10월 4일~1856년 2월 14일.

● 서

- 1855년 1월 15일 꿈 이야기. 중국의 태학, 석경은 풍화되고 공자의 사당은 황폐했음.

● 1편 마자인정기(압록강까지의 여행기)

- 10월 28일. 책문의 규모가 구차함. “우리나라 사람들의 장관(壯觀)으로는 으레 연경을 말했는데 지금 책문에 와서 책문이 이런 것을 보니 연경을 알만하다.”(270)
- 사신들이 책문에 들어갈 때 걸어가던 관례가 마차를 타는 것으로 바뀐 경위.(271)
- “책문을 볼 때는 남산골 샌님들의 백냥짜리 초가 같더니, 책문안 시전을 우리나라 운종가 육의전에 비교하여 보면 십 배 백 배가 되니, 걸으로는 가난해 보이니 실속은 부자.”(275)
- 11월 3일. 연산관에서 심양을 거치지 않고 산해관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있음. 1480년(성종11) 조선 조공 행로를 고쳐 달라고 청하였으나 명나라 ‘병부’ 상서 불허함.(280)
- 11월 7일. 심양 행궁 서가(西街)는 삼학사가 살신성인한 곳. 회포를 금할 수 없음. 동문 안 소현세자와 효종이 거쳐하던 조선관.(293)
- 11월 8일. 황제의 심양 거동이 오래되어 길이나 교량이 피폐해짐.(304)
- 11월 10일. 버려진 연대(=초소). 군사출 일이 없음을 알 수 있다.(308)
- 11월 13일 명청간의 대릉하 전투. 명의 참패. “조선장군 김응하도 죽었다.”(313)
- 청태종과 홍승주 간의 행산보 전투. “승덕과 승주가 끝내 임금을 배반하였다.” 전업군인으로서 팔기군의 재정 소모에 대한 점주 아들의 비판. 점주가 필담한 것을 찢어 태워버리고 아들을 꾸짖음.(315)

● 2편 오화연필

- 11월 17일. 저자의 산해관 장편시 가운데 “역적 오삼계가 종사의 부탁을 저버렸네”(326) “고래로 북벌계획 한번 시기 놓쳤는데”(327)라는 대목.
- 11월 21일. 제주 표류인 19명을 인솔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황력 재자관 진계환과 조우. 위로금을 노리고 고의로 표류하는 자가 많음.(337)
- 11월 25일. 북경에서는 나무가 귀하여 석탄을 씀.(344)
- 11월 26일. 북경 근처에도 비적이 많음.(345)

- 11월 27일. 북경입성. 조선과 달리 중국의 묘지 간소함. 풍수지리설의 허황됨 비판. 당 태종이 민심교란용으로 전략적으로 「혈경(穴經)」을 만들어 전래시킨 데 놀아나는 것.(347-349)
- 중국측 통관의 조선말 실력은, 조선 통역의 한어실력에 비해 형편없음.(351)
- 천담복(삼년상을 치르고 나서 백일 동안 입는 옷. 흰색이나 옥색 모시, 무명, 명주 등의 옷감을 쓴다.)을 입겠다는 우리 사신들에 대해 필요없다는 중국 예부측 답변.
- 저자는 만주사람 사랑 보운에 대한 3괘(꿨어얏을 跪) 9고두 거부. “이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.”(352)
- 유구관에 들어가려 하나, 타국 사관(使館) 출입에는 예부의 허가 필요.(353)

### ● 3편 일하일목

- 11월 28일. “요즈음 와서 국고가 넉넉지 못해서 궁궐 안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보화들이 시가로 흘러나왔는데”(355)
- 12월 1일. 황제의 경산 기설제(祈雪祭). 유구국 사신이 머리를 깎지 않고 갓을 쓴 것을 가상하다고 평함. 조선에서 해마다 조공하는 것은 제일 가깝기 때문.(359)
- 12월 2일. 중국선비 주소백과 초상을 잘 그리는 유동고.(359)
- 12월 5일. 유리창 문화당 책포(冊鋪)에서 방소동(방삭)과 알게 됨. 과거낙방생.
- 12월 8일. 방소동의 친구 이우선을 함께 만남. 필담.
- 12월 12일. 주소백과의 필담. 조선 상평통보의 의약적 효능에 대한 미신.“어찌하여 굳게 숨기지 않았습니까?”라는 우리 사신측의 우려 이유는? 조선통보는 세종 때 만들어서 7-8년간 사용하다가 저화(=닥나무둔, 지폐)로 바꾸었고, 인조 때 다시 주조했으나 사용되지 못함. 숙종 때 시행된 상평통보는 “청나라 초의 금조(禁條)”에 들어가지 않은 듯. 조선에서 주화를 시행하거나 금지하는 이유는 백성이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이며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.(384)

### ● 4편 자금쇄술

- 12월 4일. 향 폐미의 개수에 따라 3선의 향을 남촌향·소론향이라고 하고, 4선의 향을 북촌향·노론향이라고 일컫는 풍조에 대한 개탄.(396)
- 12월 16일. 황제가 유리창 노리포에서 어음 유사물을 떼어주고 은을 빌어가는 민폐.(411)
- 12월 19일. 방소동·이우선과 만남. 필담 중 청 비판. “나는 중국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.” ‘모자’ 문제. 청나라 복식에 대한 지적인 듯함. 12월 9일 주소백의 초상화에 대해서도 모자의 부적절함 지적.(376) 여기에서도 ‘손으로 머리 위의 모자를 벗어서 땅에 내던지면서’, “그것이 이 모자와 뭐가 다르겠소?”(422) 부패, 기강 해이. “대국의 걱정거리는 전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”(423)
- 남비(=태평천국)는 용병을 숭상. 증국번에 대한 인물평. 청의 인재등용 방식에 대한 문답. 방소동은 12월 21일 서경순에게 과거제 관련 서적들을 선물.(439)
- 마지막 밤 서경순의 연행에 대한 총평은 “연경은 북방 한 모퉁이 땅에 불과하고”(442)
- “지금의 지도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.”(448) 축척의 문제를 거론하고

있음.

● 5편 옥하선진록

- 12월 26일. 명나라 말에 송씨가 보루를 쌓고 농성하던 송가장. “명나라가 망한 뒤에 송씨는 대대로 과거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.....세대가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 그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한 듯.”(464)
- 1월 2일. 술에 취한 주부가 양반을 능멸하는 주정을 늘어놓음. “네가 양반 양반이라 하는데, 그것이 무슨 물건이나? 조선에 있다면 양반이라 칭함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중국에 와서도 양반 양반하느냐?”(468) 양반에 대한 풍자는 책 전체에 걸쳐 간간히 등장.
- 1월 4일. 팔기군 제도에 대한 설명. 청태종이 창건한 개병제. 8개의 기가 있고, 각 기는 출신에 따라 만주·몽고·한군의 3부로 나뉘어짐. 일정한 키가 되면 장정에 입적하였다가 60세에 면제. 각 장정에게 받을 줌.
- 1월 8일. 대릉하 전투에서의 패배를 다시 상고함. “강홍립의 투항은 만고에 씻기 어려운 조선의 큰 수치.” 강홍립은 명군이 패한 것을 알고 청에 고하기를 “여기에 온 것은 우리가 원하여서가 아니라, 옛적에 왜병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우리나라 성곽을 점거하고 우리나라 강토를 탈취하는 다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명나라의 도움을 힘입어 왜병을 격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니, 당신들이 나를 포용한다면 내 마땅히 귀순하리다.”(477)
- 1월 13일. 삼전도의 비문, “소방(小邦)이 대국에게 죄를 지은 지 오래되었다.....”(489)에 대하여, “그 문장의 하자는 천추에 씻기 어렵다.”(491)고 평함.
- 1월 18일. 연행의 통역관들이 중국사정을 탐지하여 조정에 보고하는 문견사건(聞見事件)의 실익 없음. “바보가 꿈 이야기를 하는 데 불과”(493)
- 1월 20일. 청나라가 봉황산의 안시성터를 비워놓은 것은 “조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”이라고 판단.(494)
- 1월 21일. 책문을 벗어나니 “새장을 벗어난 새가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것 같다.”(494)